

정읍서 만난 20세기 현대미술 거장 작품

‘피카소와 동시대 화가, 정읍에서 사랑에 빠지다’ 전 마무리... 3개월간 1만5000여명 관람

정읍시립미술관 특별기획전시 ‘피카소와 동시대 화가, 정읍에서 사랑에 빠지다’ 전이 약 3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있는 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 예술을 통한 위로와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 전시는 총 1만5,000여 명이 관람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람 수용인원을 50%로 제한하고, 단체관람도 중단한 상황에서도 정읍시민은 물론 광주와 전주 등 인근의 대도시에서 많은 관람객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수도권이 아닌 인구 11만의 소도시 정읍에서 피카소와 20세기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는 자체로 많은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타지역 관람객들에게 정읍의 경쟁력을 알리는 데 일조했고, 전북투어패스 연계로 주요 관광지 방문까지 유도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20세기 최고의 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회화와 드로잉, 판화, 도자 등 다양한 장르와 피카소의 사진 작품까지 1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또 함께 전시된 조르주 브라크, 마르크 샤갈, 호안 미로, 장 포트리에, 살바도르 달리 등 20세기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들도 화려하고 풍요로웠다.

이와 함께 피카소와 동시대 화가들을 재해석



정읍시립미술관 특별기획전시 ‘피카소와 동시대 화가, 정읍에서 사랑에 빠지다’ 전이 약 3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하는 국내 작가들의 미디어 작품과 AI를 활용한 체험 콘텐츠도 더해지며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관람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정해진 동선에 따라서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번거로운 입장 절차를 협조하며 관람해주신 덕분에 안전하게 전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립미술관은 기획전시 ‘예술의 향기로부터, 심’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6월 15일 개막 예정이다.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정읍’ 전개에 맞춰 힐링과 치유를 위한 오감 체험형 전시를 통해 향기와 더불어 정읍의 예술을 즐길 수 있다.

전시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시간 입장 가능하며(오후 5시 입장 마감) 월요일은 휴관한다.

전시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립미술관(063-539-51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태환 기자



제48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됐다.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성료

대면·비대면 심사 병행... 판소리·무용·민요 부문 등 수상자 선정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48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이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과 대면심사를 병행해 열린 경연으로 펼쳐졌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결선 대면심사도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판소리(명창부) 대상 정승희(대통령상), 최우수상 양혜인(국회의장상) ▲판소리(일반부) 대상 김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무용(일반부) 대상 ▲기악관악(일반부) 대상 김지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기악현악·병창(일반부) 대상 장삼수(국무총리상), ▲민요(일반부) 대상 박초현(전라북도지사상), 다음은 학생부로 ▲판소리 학생(고등부) 대상 박예림(교육부장관상) ▲판소리 학생(중등부) 대상 박은을(전라북도교육감상) ▲판소리 학생(초등부) 대상 오우석(전라북도교육감상) ▲무용(학생부) 대상 김소영(전라북도교육감상) ▲기악관악(학생부) 대상 조은결(전라북도교육감상) ▲기악현악·병창(학생부) 대상 최윤서(전라북도교육감상) ▲민요(학생부) 대상 이유정(전라북도교육감상) 등이 수상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 정승희 씨 수상

제48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경연에서 정승희(39, 전남 목포) 씨가 판소리 춘향가 중 ‘박석고개 대목’을 열창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정씨는 제47회에 출전해 최우수상을 입상하였으며 이번 48회 대전에서 마침내 대통령상을 거머쥐었다. 정씨는 할머니의 권유에 의해 7살 나이에 소리에 입문했으며, 안해란, 성우향, 박양덕 명창으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정 씨는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음악극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부수석으로 왕성한 국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조영자 종합결산 심사위원장은 “소리꾼은 우선 목이 약하기 때문에 목이 타고 나아진다. 정명창의 소리는 오늘 공력도 좋았고, 안정감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노련했다”고 평했다.

판소리 대통령상을 받은 정승희 씨는 “늘 발전하고, 노력하는 소리꾼으로 살겠습니다. 2번의 도전 끝에 목표를 이루었는데, 지금부터 다시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한발 한발 우리 소리를 알리고 전통의 맥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소리꾼의 삶을 동경하고, 명창의 꿈을 키워왔다”며 “여러 대회



에 참가했었지만, 그 어느 대회보다 수많은 명인 명창을 배출한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춘향국악대전이라는 큰 대회에서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지난해 춘향가로 대회에 출전해 3등에 그쳤었는데, 올해 그 한을 마음껏 풀어서 너무 감회가 새롭다”면서 “그동안 대회 준비로 완창을 선보이지 못했는데 앞으로 매년 판소리 다섯바탕을 돌아가면서 완창무대도 갖고, 우리 소리를 새롭게 일리는 무대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15회 푸른 꿈 맑은 생각 표현전’ 수상작 전시

도교육청, 초·중·고교 187명 학생 수상... 20~24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

도내 학생들의 꿈과 이상을 담은 창의적이고 참신한 내용의 예술작품이 한 자리서 선보인다.

전북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북중등미술교육연구회에서 주관한 ‘제15회 푸른 꿈 맑은 생각 표현전’ 수상작 전시회가 오는 20~24일까지 전북교육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은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해 창의적인 생각과 정서를 표현하고 자긍심과 성취감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 간 작품접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화, 회화, 조소, 디자인·영상, 공예, 설치미술 등 6개 분야에 1,315명이 응모했다. 이는 전년도 556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속

에서도 예술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대상은 김유성(전주중앙중 3) 학생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최민준(이평초 5), 유승현(죽산초 4), 김나영(서전중 3), 문가연(원광정보예술고 2), 최승빈(전일고 2), 김승우(양현고 2), 송예진(전북여고 3) 학생이 수상했다.

또 우수상은 이수이(전주제일고 1) 학생의 11명, 특선 오승우(상관중 3) 학생의 49명, 입선 김윤우(부안남초 4) 학생의 116명 등 총 187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지도교사상은 전주중앙중 이남경·이평초 박하나·죽산초 이현희·서전중 이우평·원광정보예술고 강현우·전일고 김하은·양현고 이정란·전북여고 이한우



대상을 수상한 전주중앙중 3학년 김유성 학생 걸음 작품.

교사에게 각각 수여됐다. /정읍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